

일본인의 홈술 문화는?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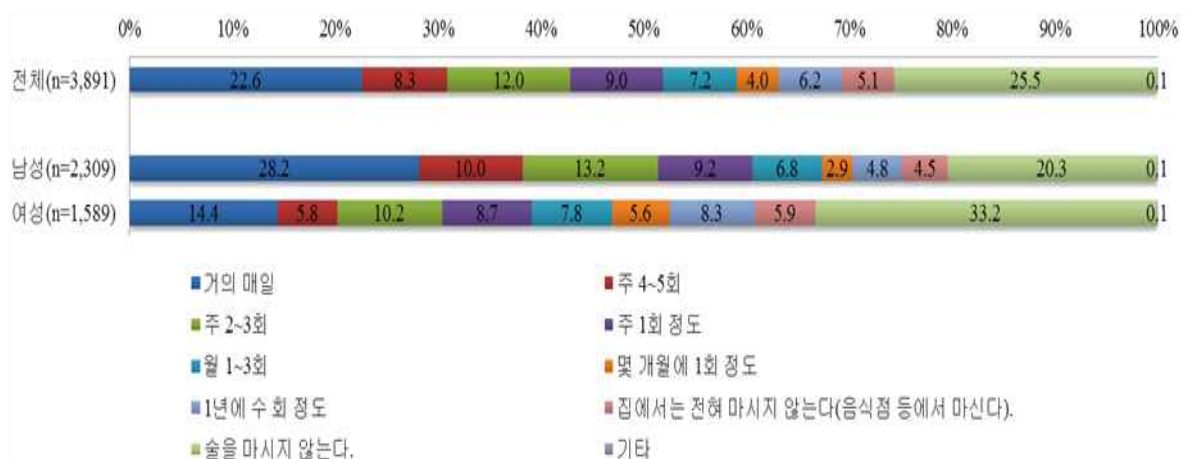
2017.09.28.

오사카지사

□ 일본 주식회사 PLANET은 전국 20대 이상 성인 3,891명을 대상으로 홈술 (집에서 마시는 술)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여 결과를 아래와 같이 발표하였다.

○ 일본인의 50% 이상이 홈술을 즐긴다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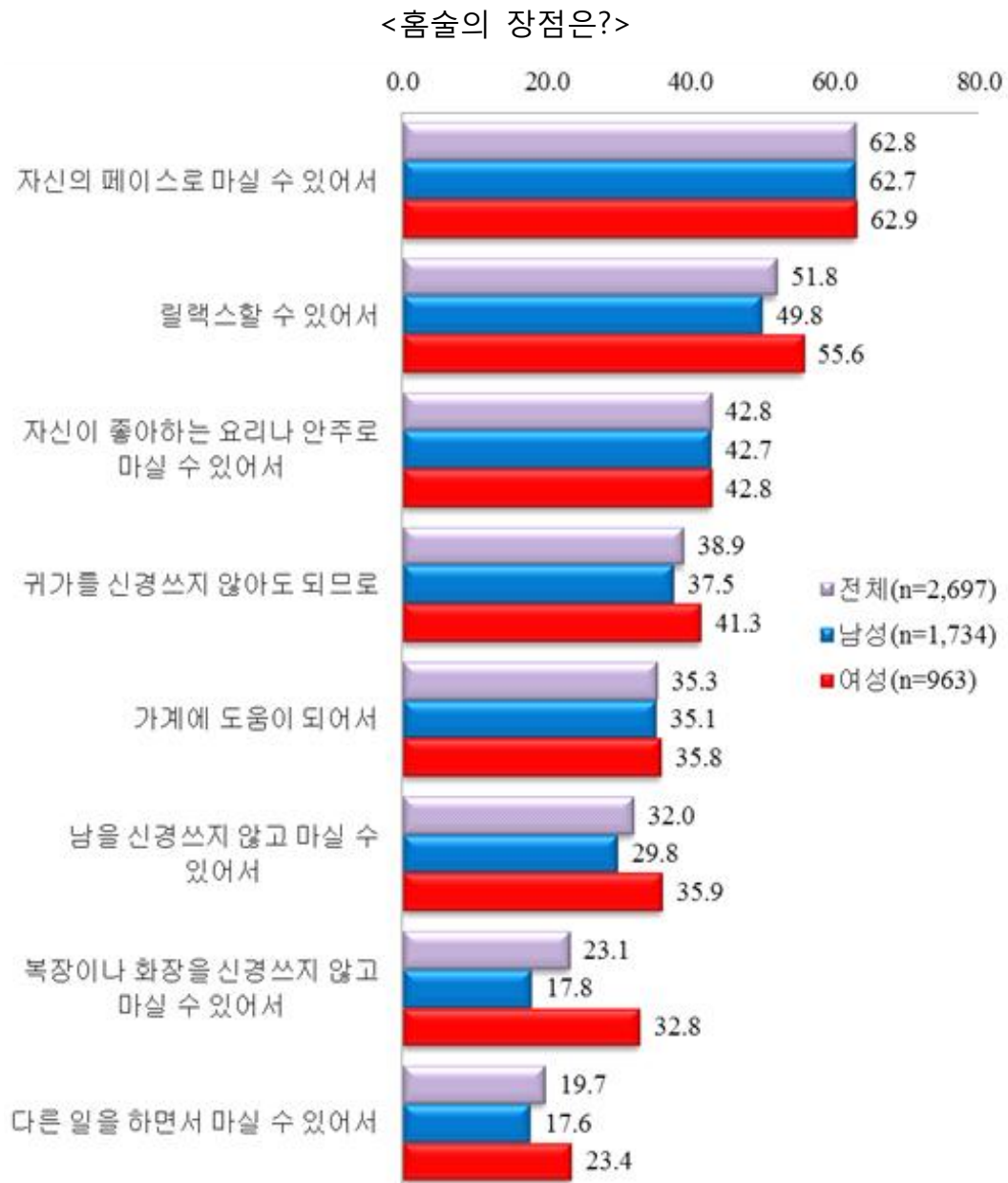
- 남녀 전체 대상자 중 '거의 매일 즐긴다.'가 22.6%, '주 4~5회'가 8.3%, '주 2~3회'가 12.0%, '주 1회 정도'가 9.0%. 일본인의 51.9%가 주 1회 이상 홈술을 즐기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.
- 또한, '술을 마시지 않는다'를 제외하면, '거의 매일'이라고 응답한 사람이 가장 많은 것으로 보아 술을 마시는 사람은 거의 매일 마시고, 마시지 않는 사람은 아예 마시지 않는 양극단으로 나뉘는 것을 알 수 있다.
- 성별로는 20대를 제외하고는 주 1회 이상 홈술을 즐기는 비율은 여성보다 남성이 높았으며, 전체적으로 남성은 '주 1회 이상'이 60.6%로 여성의 39.2%보다 1.5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.
- 연령대별로는 남성 20대 32.5%, 30대 41.9%, 40대 53.8%, 50대 66.1%로 고연령층일수록 홈술을 즐기는 것을 알 수 있다.



*이미지 출처 : 자료 출처 데이터를 근거로 오사카지사 작성

○ 홈술의 장점은?

- 남녀 전체 1위는 '자신의 페이스로 마실 수 있어서'가 62.8%로 가장 많았으며, 그 다음으로 '릴랙스할 수 있어서' '자신이 좋아하는 요리나 안주로 마실 수 있어서', '귀가를 신경쓰지 않아도 되므로', '가게에 도움이 되어서'순이었다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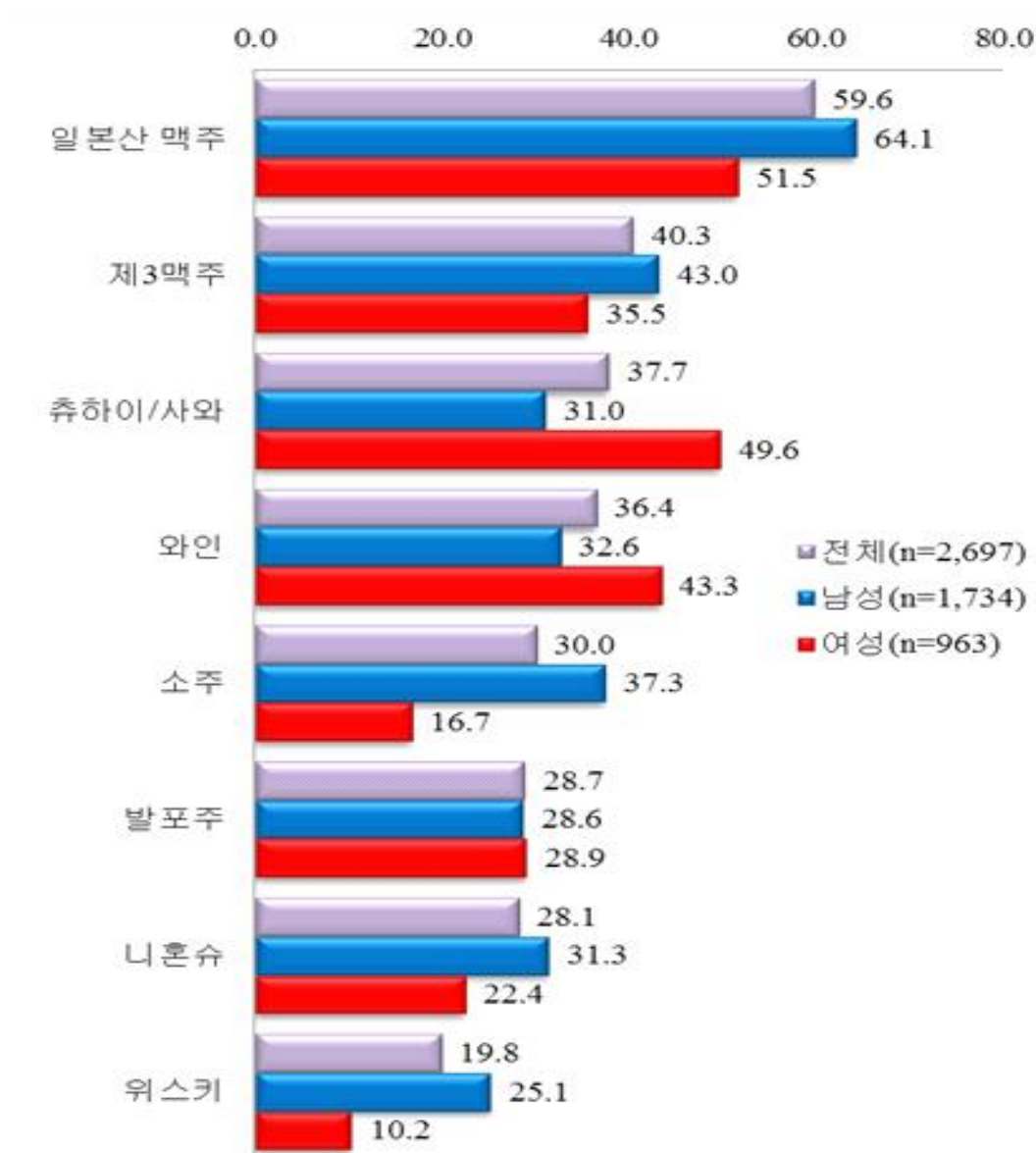


*이미지 출처 : 자료 출처 데이터를 근거로 오사카지사 작성

○ 홈술을 즐길 때 마시는 술은?

- 전체 1위는 '일본산 맥주'가 59.6%로 가장 많았으며, 그 다음으로 '제3맥주' '츄하이/사와', '와인', '소주', '발포주'순이었다. 조사기간이 8월로 계절의 영향이 있었는지도 모르겠지만, 맥주가 1위, 2위를 차지했다.
- 성별로는 남성은 일본산 맥주, 제3맥주, 소주를 홈술로 즐기며, 여성은 일본산 맥주, 츄하이/사와, 와인을 즐기는 것으로 나타났다.

<홈술을 즐길 때 마시는 술은?>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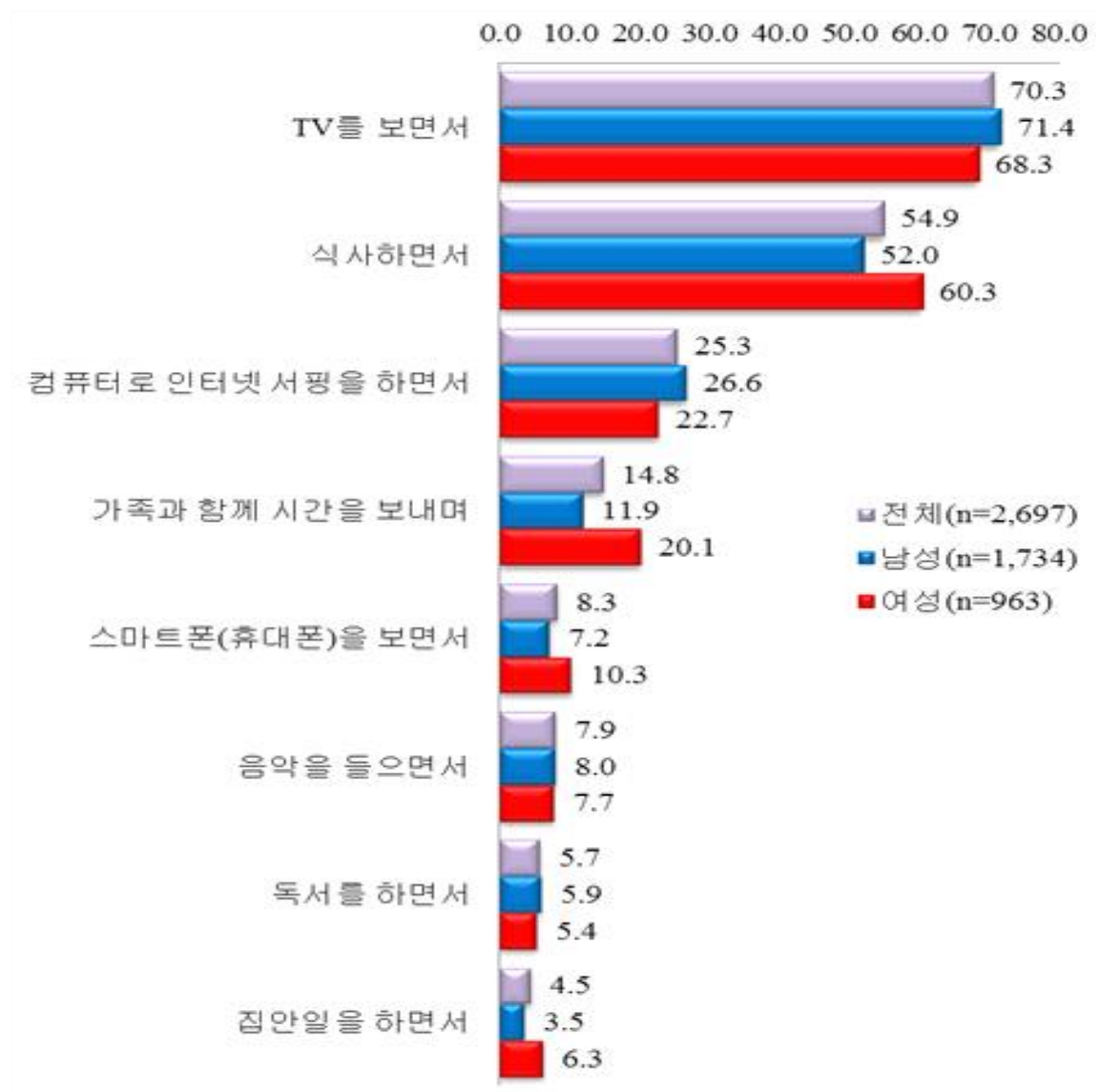


*이미지 출처 : 자료 출처 데이터를 근거로 오사카지사 작성

○ 홈술은 '반주'보다 'TV와 함께'

- '홈술은 무엇을 하면서 마시는 경우가 많나요?'라는 질문에 1위는 'TV를 보면서'(70.3%)가 압도적으로 높고, 2위가 '식사를 하면서'(54.9%), 3위 '컴퓨터로 넷서핑'(25.3%) 순이었다.
- 남녀차가 나타난 것은 '식사를 하면서'는 여성의 비율이 높은 반면, 남성은 'TV를 보면서'와 '컴퓨터를 하면서'가 높았다. 남성은 '혼자서', 여성은 배우자나 가족과 홈술을 즐기는 비율이 높다는 것을 알 수 있다.

<홈술은 무엇을 하면서 마시는 경우가 많나요?>



*이미지 출처 : 자료 출처 데이터를 근거로 오사카지사 작성

□ 시사점

- 일본에 수출되고 있는 한국제조 OEM 제3맥주는 일본인이 홈술로 인기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. 또한, 제3맥주는 남녀 선호도 차이도 크지 않아 남녀 전체가 집에서 즐기는 술로 자리매김한 것이다.
- 일본 전체의 맥주소비는 감소하고 있지만, 가정 내에서 마시는 술은 비교적 저렴한 것을 선호하므로 한국산 제3맥주의 소비전망은 나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된다.

일본 주식회사 PLANET 발간자료 『From プラネット』 「홈술에 관한 의식조사」